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교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지난 해 12월 1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은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별써 민족의 삶과 1700년에 가깝게 호흡을 같이 해온 불교계가 민생을 걱정하고 민족문화의 쇠잔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으니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는 것은,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의 쇠잔을 민생 스스로 걱정할 정도로까지 방치해버린 정부의 안일하고 개탄스러운 태도이다.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쌓아온 것이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국민이 애원하고 질타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왔던 것이 정부요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정부요역은 그조차도 무시하고 있으니 우려스럽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행원(行願)을 세우고 순례를 시작하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종교,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타자(他者)’들을 계속 배제하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희한한 행정, 희한한 정치를 당연하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결과는 자명하다. 갈등과 충돌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결사’는 불교계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닐 것이 당연하다. 제발 귀 좀 파고 ‘타자’의 이야기도 들어라. 혹은 오히려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고 있다면, 이제는 제발 한쪽 귀는 닫고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공명시켜 보아라. 대한민국은 일부 위정자들의 나라도 아니고, 일부 종교인들의 나라도 아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공동체이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공동체이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공동체이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공동체이다.

그 행원이 잊혀질 때면, 자주 잊어버릴 때면 순례를 시작하자. 거창한 순례가 아니다. 바쁜 직장 일 때문에, 다사다난한 가

고 싶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장님 문고리 잡기 식의 원(願) 세우기는 이제 그만 두자고 말하고 싶다. 그런 원(願)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원 곧 행원(行願)을 세우고 말하고 싶다. 그냥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롯이 바르게 인도해줄, 내 일상의 사소한 삶에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행원을 세우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행원이라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불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불교를 믿고 행하여서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런 행동으로 사는 것을 보니 불자(佛子)구나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자로서 살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불자로서의 우리 삶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똑같이 행으로 이어져야 할 때이다. 나도 우리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 대접 못 받는 속절없는 세월을 맞이한 것이다. 모쪼록 우리 사소한 일상에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원을 하나만 세우자.

정사 때문에, 무심결에 지나쳤던 내 행동 내 말투 내 생각들을 점검하자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러한 순례길을 제일 먼저 떠났던 분이다. 그리고 불자인 우리는 그 순례길을 뒤따르고자 애쓰는 이들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순례길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행원을 세우고 순례를 시작할 때라야, 불교가 이 땅의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해왔던 지난 1700년 역사의 의미를 저들에게 오롯이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한국불교 1700년의 무게를 우리 역시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행원을 세우고 그 행원을 실천해나가는 공동체를 ‘결사(結社)’라고 한다. 이제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정진결사”, 그 결사에 걸맞은 각자 각자의 맞춤 행원을 세우고 순례를 시작해보자. 그것이 결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결사의 동참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뒤떨러가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를 바로잡고 지키는 길이다. 결사를 이끄는 교계 지도자를 역시 선언이 아니라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놓아야 할 임명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社說

자성과 설행 결사를 응원하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6일 ‘범종단적 자성과 설행 결사를 제안합니다’ 제하의 신년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자성과 설행 결사는 종단 및 사찰운영 인식전환과 종단 지도력 확보, 조계종 신뢰회복 및 종단 자주역량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결사를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다섯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는 한국인의 정신이자, 불교는 삶과 문화 그 자체이다. 하지만 불교는 관습에 매몰되고 본 모습을 망각해 국민과 멀어졌다”며 “권력과 외부에 향한 의존을 과감히 없애고 자성을 바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스님은 최근 벗어난 정부·여당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외부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자. 외부에 향한 요구와 주장이 아닌 우

리스로의 변화와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자비로써 보살정신 구현하는 대승불교가 한국불교의 길”이라고 말했다.

역대 총무원장의 담화문은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승 스님의 담화문은 획기적인 변화로 기록될 만하다. 일각에서는 담화문에 무엇을 반성하고 참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사의 실천방안이 전방위적이라는 긍정적 평가의 이면에는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담화문 곳곳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은 조고각하(照顧脚下)와 회광반조(回光返照)의 정수를 보여준다. 불교는 자성의 종교 아니던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말하는 자기 성찰과 비전이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폴 니터 교수와 길자연 회장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조계종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예방에서 길 회장은 처치스테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웃집에 오면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마련이다. 행여 주인의 마음을 불편케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객의 마음이다. 불교계 수장을 만난 자리에서 “템플스테이가 불교의 신앙과 정신을 대중에게 포교하고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길자연 회장의 발언은 개신교가 템플스테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더 나아가 개신교 장로 대통령을 둔 정부가 템플스

길자연 회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땅밭기와 관련해 “기독교의 사람은 덮어주는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거듭된 질문에 길 회장은 “(땅밭기와 관련한)기독교인은 한 기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구랍 31일 대구 동화사를 찾았던 신학자 폴 니터 교수는 “땅밭기 등 불교개혁을 하는 개신교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다. 이들을 불자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들이 불자를 미워할지라도 불자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회장이 겹지등을 다녀간 지금, 폴 니터 교수가 생각한다.

사부대중 갈럼



신필수
BGC의한브로커

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높임말을 알기 시작 할 때부터 “나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알기에 나는 약삭빠르기도 쉽고 간단한 방법을 택했다. 그냥, 단순히 ‘어찌 됐든 남들과 달라질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로 인해 나의 취향·성격·행동양식은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인과 다른 나’를 형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살기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의 등 난제를 열자리에 내 문제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방식도 있는 거랍니다”라며 자위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수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슬그머니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범’이라는 수면 위로 힘차게 고개를 쳐들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웃이든, 땀방아방이든, 자신이 타는 차이든, 들고 다니는 책이 됐든, 머리스타일이든 심지어는 함께 다니는 친구까지. 매일매일 피켓 들고 다니며 자신을 PR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 대신 이런저런 소품들로(친구까지) 소품으로 비유한 건 좀 그렇지만)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다.

최근 그런 소품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언어이다.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도 “나 지금 변(便) 뽀니다”라며 실시간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자기 PR과 허영심

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중은 어디서 본 듯한 유명한 말들을 자신의 언어인 양 자기 치장에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대단한 지식인이나, 혹은 독특한 철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마구잡이로 차용해 사용 중인 표현은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거나 유명한 소설이나 수필에서 이미 쓰인 표현인 경우가 많다. 또, 공감각적 심상을 논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 인터넷 상에서는 한 때 ‘허세글’이라는 것이 유행해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액세서리 형태의 글들 중 어이없는 글들만을 모아 비롯어나 혹은 자조적인 형태로 일부러 과장된 글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침부된 사진만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이 언어표현의 풍부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긍정적 놀이문화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나 역시 고교시절 일시를 위해 읽었던 ‘삼대(三代)’라는 작품의 한 대목을 패러디해 점심시

간에 친구에게 “여보게 소시지부터 하나 내게, 내 턱은 그저 무어냐 들어오라는 턱 일제”라며 장난을 친 기억이 있으니, 하지만 언어의 무게를 무시한 채 허영심이나 채우기 위해 발생된 놀이나 유희가 언어의 다양성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내가 써놓은 위의 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다. 마치 언어학적 조어가 깊은 전문 칼럼니스트라도 된 것처럼 한껏 으스스 대며 써놓았다. 나도 ‘허세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다. 또, 내가 만든 상상속의 청중의 박수갈채가 줄어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열연했다. 타인의 환호에 목숨 걸었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중했다. 결국 나의 에너지는 고갈돼 갔고 텅 빈 내안에는 허망함이 쌓여갔다. 새해에는 내가 나의 진정한 팬이 되고 싶다. 그러고 말하기에는 31살의 나이가 부당스러운 방향하는 정준의 자조적 고백이다.

영남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승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단(괘불이운), 대령, 관육, 응운계(신종작법39위,104위), 지정경, 시왕도성,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사식, 구병사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오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식,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상운 스님

-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1년 3월 10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 별도)
-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를 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패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패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1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